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8-39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시고,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교를 동역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외롭지 않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저희 가족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한동안 고생하였으나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동역자님들의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선교사역에도 여전히 제약이 따르지만 롱게르데드 교회는 날로 부흥되고,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2022년 한 해도 환경과 상황에 물러서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좇아 달려가며, 영혼 구령을 위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2022년 새해에도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케냐에서 안경열, 이혜란(예준,예성,예림) 선교사 드림-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왕상 8:29)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되었다.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실한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며,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주신 선교 동역자님의 기도의 힘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 건축자재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성전을 건축하고 마치기까지, 때마다 일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 하심, 이끄심,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그 모든 것을 세세히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고백한다.

새로이 넓고 큰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것은 먼저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롱게르데드 지역의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귀한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듯하다.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수고를 다짐해 본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기존의 교회 땅(3,600평) 크기 만큼의 땅을 더 주겠다면서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만들어 교회 땅을 확장해 주었다.

그리고 교회에서 땅이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땅을 더 주겠다고 한다.

이제 다시 이곳에 아이들을 위한 ‘꿈도서관’ 건축이 2월 7일부터 시작되었다.

‘꿈도서관’은 롱게르데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새로운 배움이 있고, 꿈을 꾸고, 꿈을 꽃피울 수 있는 멋진 장소가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롱게르데드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할렐루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눅 15:4)**

케냐에서 히잡(이슬람 여성 복장)을 입은 여성을 예전보다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케냐의 이슬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롱게르데드교회가 있는 삼부루 아쳐스포스트 역시 이미 이슬람이 들어와 모스크와 학교를 세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슬람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물질’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수단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도 너무도 쉽게 이슬람에 전도되고 특별히 이슬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통해 이슬람의 교리와 사상으로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을 포섭하고 있는 상황은 복음 전파의 시급함을 느끼게 한다.



얼마 전, 우리 교회 학생 중에도 이슬람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스틴(Justine, 15세)이라는 중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스틴을 하루라도 빨리 그 학교로부터 빼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학생의 부모님을 만났다. 부모님을 만나보니 부모님도 다른 학교로 보내고 싶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곧바로 저스틴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며, ‘꿈장학회’에서 돌보기로 하고,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와 교복, 학교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챙겨주고는, 복음과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짧은 메시지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학교에 들여보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이 내 마음에도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도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이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임을 다시 되새기게 하신다.



긴 가뭄으로 인해 양과 염소를 데리고 먼 곳에서 유숙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갔다. 이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양과 염소가 가뭄으로 인해 죽어가기에 풀을 찾아 3일 길을 걸어 이 먼 곳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식량은 고사하고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잠을 자고 쉬는 집은 나뭇가지에 비닐을 씌워 비나 차가운 공기를 겨우 막을 정도였다. 게다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한, 둘이 아닌지라 식량이 없어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던 믿음의 동료들, 영적 지도자의 부재로 영혼이 메마르고, 갈급하여 영과 육의 고단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다.

그동안 간간히 소식을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어려워 보여 마음이 아팠다. 준비해 간 양식을 나누고 함께 예배도 드리며 주님께서 이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다.

먹을 양식을 받아서, 과자를 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다가 오랜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니 그렇게 기쁘고 반가울 수가 없었다. 또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메마른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올 한해 롱게르데드 교회 안에 믿음의 성장과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2. 함께 목회하는 라위목사님과 프리다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더욱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3. 주중에 진행되고 있는 수요마마학교와 금요기도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4. 롱게르데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꿈도서관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갖고, 꿈을 향해 전진해 가게 하소서.
5. 꿈장학회 장학사역을 통해 이 땅의 청소년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6. 이제 시작되는 도서관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우소서.(2월 7일부터 약 1달간)
7. 안경열 선교사에게 말씀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지에서 여러 날 지내는동안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강 지켜주소서.
8. 올 한해 가족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 롱게르데드 교회의 새성전 -



(▲꿈장학회 학생들과 라레소로교회 성탄애찬▼)

